

곡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률 제고 '총력'

총 400억 확보·13개 사업 추진...연말 집행률 80% ↑ 기대 생활인구 유입·청년 자립 기반 조성·폐교 위기 극복 목표

곡성군이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별관 회의실에서 전남도 인구정책과 관계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부서 실무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2024년 기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곡성군은 그동안 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총 400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2-2023년 기초 168억원·광역 12억원(B등급) ▲2024년 기초 112억원·광역 108억원(A등급)을 확보한 결과로, 전남도 인구감소지역 16개 지자체 중 기금 최대 확보 순위로는 두 번째

를 차지하고 있다.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와 청년 자립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들의 직주락 환경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곡성형 청년하우징 타운'(98억원), '스마트청년농부 캠퍼스 조성'(66억원), '곡성형 유토피아 시범마을'(10억원)이 있다.

또한 전례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곡성 내 체류형 관광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곡성, 돌아오지마' 조성(70억원)과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핵심연계거점 조성'(15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학 교육협력체계를 통한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해 '곡성유학마을-도담도담 오산'(20억원), '곡성유학마을-삼



곡성이 체류형 관광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곡성, 돌아오지마' 스테이션 전경. <곡성군 제공>

거리스타타운'(71억원), '곡성유학마을-너나들이 석곡'(50억원) 등도 진행 중이다.

점검일 기준인 지난 17일 집행률은 ▲2022년 89.2% ▲2023년 14.4% ▲2024년 19.3%이다. 올해 연말까지의 예상 집행률은 ▲2022년 99.6% ▲2023년 22.4% ▲2

024년 49.2%로 전망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기금 사업 중 '유토피아 시범마을'과 '섬진강권 관광벨트 조성'은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한 사전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연됐다"며 "단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다른 기금사업 간 조정을 통해 집

행률을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서형규 기획실장은 "집행률 또한 투자계획 평가에 크게 작용하는 만큼, 기금 부서 간 수시 회의를 통해 집행률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곡성군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

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밖에 기금사업들은 연말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 상반기 중 선금 및 준공금 지급 등을 통해 집행률이 8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김영필 기자

김한중 군수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 장성이 최적"

내년 타당성검토용역비 반영 등 산림청 방문 적극 협조 요청

김한중 장성군수가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산림청을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과 면담을 갖고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 장성군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당위성 설명과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 기본조사 및 타당성검토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을 모아줄 것도 당부했다.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은 아열대자생식물의 보존 및 연구를 담당하는 시설로 아열대자생식물원(전시온실), 아열대자생식물보존원, 작물재배원장보



김한중(왼쪽) 장성군수가 최근 산림청을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에게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 유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존원, 교육센터, 관리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김한중 군수는 "삼계면 국립아열대

작물실증센터와 더불어 국가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국회와 관계기관을 수시 방문하는

등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 건립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 '양파·채소 종자 연구소' 설립 추진

도·에코팜테크 투자협약...2026년까지 200억 투자 계획

담양군은 "최근 전남도, 농업회사법인 ㈜에코팜테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성면 불황리 191번지 일원에 투자액 60억원 규모의 양파 및 채소 종자 연구소 신축에 대한 투자협약으로, 전남도와 담양군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에코팜테크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협력하게 된다.

(주)에코팜테크는 연구소 신축 외에도 2026년까지 약 200억원을 투자해 세미나실과 직원 숙소, 종자 연구를 위한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신축해 종자 품평

회와 포럼 개최, 국내·외 유통 및 수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양파 종자 개발회사 ㈜씨드온과 함께 양파 종자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대구에서 담양군으로 본사 이전을 결정했다.

원태환 대표는 "지역 인력 고용 창출과 양파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로 담양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병노 군수는 "담양으로 투자를 결정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성균 기자



고흥, 고당도 레드키위 본격 출하

농장 경영게임 '레알팜' 이용자에 판매 예정

고흥군은 24일 '뛰어난 당도와 풍부한 과즙을 자랑하는 레드키위를 본격 출하했다"고 밝혔다.

고흥산 레드키위는 조생종으로 평균 23브릭스(Brix)의 높은 당도를 자랑하며 특히 여성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고흥 레드키위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네오게임즈에서 운영하는 '레알팜마켓'에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레알팜마켓은 이동통신용 농장 경영게임 '레알팜'의 이용자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며, 하루 이용자 수가 1만명이 넘는 게임으로 이를 통해 고흥 레드키위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소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키위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 올해 5ha 규모 4개 농가에 3억원을 이 상기후 극복 시범사업으로 지원, 고품질 고흥 키위 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키위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 기술교육과 위탁판매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고흥군 레드키위 재배농가는 "레드키위는 후속 과일로, 후속 방법을 잘 숙지해 더욱 맛있는 레드키위를 즐겨달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상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배 기술교육과 판로 확보에 힘써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복환 기자



구례,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24일 "동절기 산물 예방, 미세먼지 저감,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3조·10명)이 농장에 방문해 과수 전정가지 및 콩대, 고춧대, 옥수수 대 등 발작물 부산물을 무료로 파쇄한다.

구례군은 산림 연접지(100m 이내), 고령층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신청을 한 농가는 농장 내 비닐, 노근, 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을 미리 제거해야 하며 영농 부산물을 필지 내에 일정 간격으로 사전에 모아둬야 파쇄·수거작업이 용이하다.

박근규 소장은 "농민들이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물 예방·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화순 지방상수도 현대화, 목표 우수율 초과 달성

6년간 282억 투입...연간 69만t 절감 효과

화순군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화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목표 우수율 85%를 달성해 한국상수도협회 성과관정위원회로부터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총 6년간 2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화순읍·능주면·도곡면 일원을 7개의 소분류로 세분화해 상수관망의 심각한 노후화와 누수율을 개선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

화순군은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

해 전문건설엔지니어링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유량계, 수압계, 수질계측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상수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누수복구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 상수도 우수율 향상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현대화사업 예상 목표 우수율이었던 85%보다 높은 86.6%를 달성했다.

이 수치는 2018년 64.9%에 불과했던 우수율을 21.7% 향상해 연간 69만t의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수도물 생

산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15억원을 절감한 셈이다.

우수율이던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도물 중 각 가정집에서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수량의 비율이다.

우수율을 잘 관리하면 수도물 생산과 공급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소중한 물 자원 보존에 이바지한다.

박종욱 상수도사업소장은 "화순읍의 우수율 제고와 관망 개선을 통해 얻은 성과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군의 전반적인 상수도 우수율 향상과 수질, 수압 등의 지방상수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3건 선정

내년부터 취약계층 청년·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지원

여수시는 24일 "고향사랑기금사업 3건을 선정해 취약계층 청년과 유소년 축구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청년(18-45세)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유소년축구단(U-15, U-18) 운영비 지원 ▲자립준비청년 대학 진학 필요 자금 지원사업 등으로 여수시의회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부서별로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후 자체 회의를 거쳐 고향사랑기금은 용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최근 위원회를 개최해 3건을 최종 선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금사업은 단순

한 재정지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밑거름"이라며 "기부자의 뜻이 꼭 필요한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모두의 공감대를 사는 사업 발굴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및 답례품(기부 금액의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는 전국 농협창구와 고향사랑e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수=김진선 기자